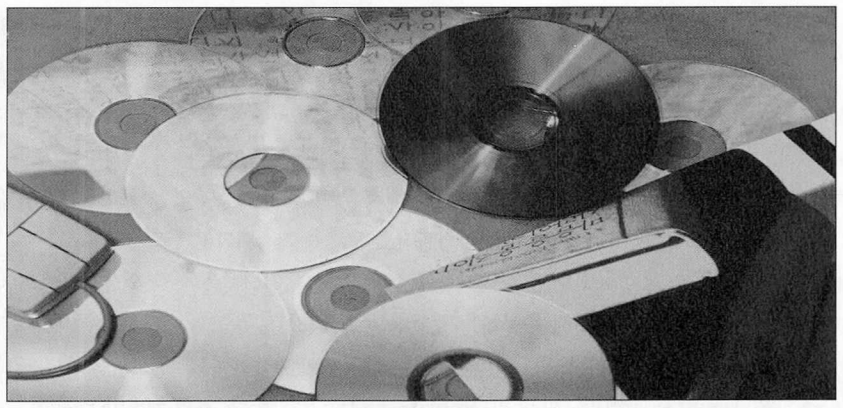
실용화 머잖은 전자책의 시대

디스크책에서 한걸음 나아간 화면책 출판 도래

이기성 · 계원조형예술대 출판디자인과 교수

미래의 책은 소리와 영상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제공하고 거의 반영구적이며, 유통과정에서 엄청난 경비절감의 이익을 주기도 한다. 이제 디스크는 전자종이로서 출판계가 적극 도입해야 할 선택으로 보인다.



전자출판물의 미래에는 컴퓨터와 통신을 통해 읽는 '화면책'이 도래할 것이다.

전자출판물의 발달은 개인용 컴퓨터의 대량 보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보를 찾아보는 넷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제 누구나 집에서 전세계의 논문이나 잡지, 신문 등을 화면을 통해 읽을 수 있을 뿐아니라 추가·삭제·프린트까지 가능하다. 이같은 전자출판물은 종이가 아닌 매체에 출력이 되는데, '디스크책 전자출판'과 '화면책 전자출판'으로 구분된다. 현재 전자출판물을 대표하는 CD롬은 디스크책의 일종이다.

또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넷츠고 등 전자게시판(BBS) 서비스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화면책 출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웹책(Web Book)과 웹잡지(Webzine)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로 제작된 단행본이나 디지진(Digizine)을 구독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정보의 디지털화가 전자출판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통신망으로 읽는 화면책

현재 가장 일반화된 CD롬과 같은 디스크책은 보조기억장치의 일종인 메모리를 포함하는데, 전자수첩이나 전자사전도 여기에 해당한다. 디스크책은 디스크의 발전에 따라 그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아날로그 방식의 LD로부터, 음악용 CD, 디지털 방식의 CD-DA(Compact Disc - Digital Audio),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CD-I(Compact Disc - Interactive), CD-ROM/XA(CD-ROM eXtended Architecture), PhotoCD(Photo Compact Disc multi session bridge disc), DVD(Digital Versatile Video Disc)에 이르기까지 주로 음악용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로 사용되던 디스크가 디스크책이라는 전자출판물로 탄생하게 된다. 지금 디스크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CD롬은 머지않아 DVD(Digital Versatile Video Disc: 디지털 다기능 비디오 디스크)에게 그 자리를 뺏길 것이다.

전자회사가 내놓는 여러 기기들은 전자책의 미래를 보여준다. 이제까지는 컴퓨터의 디스크 드라이브에다 디스크책을 넣고 읽었지만, 소니의 DD-11 같이 디스크책을 읽기 위한 전용장치에다 넣고 DD-11에 달린 조그만 화면으로 보거나 TV에 연결하여 TV로 읽을 수도 있다. 또, 세가의 PICO같이 카트리지(ROM)형태의 책을 읽는 장치도 있다. 이 장치에는 화면이 달려 있지 않으므로 TV화면을 사용한다.

많은 오락기들도 게임팩(게임카트리지) 대신에 책의 내용을 담은 카트리지를 넣으면 TV화면으로 책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삼성전자가 하노버 전시회에 출품한 손바닥컴퓨터(핸드헬드 PC)는 액정 화면이 기존의 핸드헬드 PC보다 커서 디스크책이나 화면책 읽는 장치로 충분히 실용화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자출판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필자가 인증심의한 전자출판물은 키드픽스 스튜디오(아리수미디어), 중학수학(이포인트), 퐁당퐁당 노래방(아리수미디어), 전국판 인명 CD번호부(한국전화번호부/한국통신) 정도로 아직까지는 디스크책이 전부인 형편이다. 1999년 3월 20일까지 화면책은 인증 심의를 요청해 온 것이 아직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전자출판물의 미래는 디스크책 출판시대보다 한걸음 더 발전해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한 화면책 출판시대의 도래라고 하겠다. 앞으로 단행본은 디스크책으로, 잡지는 거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읽는 '화면책'으로 변화할 것이다. 화면책이란 통신망에 책내용을 출판한 것인데, 컴퓨터업계의 표현으로는, 통신망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올려놓는 것이다. 즉, 화면책 출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출판을 말한다. 아무리 디지털 형태의 내용이라도 통신망에 업로드시킬 수 없다면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아니다.

이같은 화면책 출판(SBP:Screen Book Publishing)은 본래의 기능이 디스크책 출판과 같으나 디스크책을 수천, 수만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책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읽어보는 형태다. 하이텔이나 천리안에서 연재되던 한수산씨의 소설이나 퇴마록 등이 바로 화면책이다.

휴대용 단말기도 곧 실용화

화면책과 디스크책의 차이는 유통(운반)이 손쉬운가, 어려운가에도 있다. 운반이 어려운 것은 대용량의 기억장치(하드디스크, 디스크드럼 등)에 저장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을 사용하여 이를 읽거나, 하이텔단말기 같은 전용단말기를 전화선에 연결하여 읽는 것이다. 특히 통신망을 사용하는 화면책이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확대 보급으로 인해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형태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일례로 신문기사를 화면책 형태로 데이타베이스 구축하고, 전용단말기로 신문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인 '패널'의 발명은 전자출판의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패널' 같은 전용단말기가 개발된 것은 무선통신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휴대용 전화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전화기는 당연히 전화선이 연결돼야만 통화가 된다고 알았다. 현재는 전화선이 있어야만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선이나 전용선에 개인용 컴퓨터나 단말기가 연결되는 것만 생각하나, '무선 모뎀'이 개발되어, 화면책을 읽는 장치인 '패널' 같은 휴대용 단말기의 실용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또한 잡지 크기에 500g 정도의 무게로 개발되고 있는 '태블렛' 단말기도 있다. 이것 역시 무선 또는 유선으로 신문을 읽는 장치로 미국의 '나이트리더'에서 개발한 것인데, 전화 기능도 첨가시켜 광고가 게재된 곳에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패널'이나 '태블렛'은 신문용으로 개발된 장치이지만, 이와 같은 단말기를 출판사에서 사용하면 이것이 곧바로 책읽는 장치로 이용될 것이다.

미래의 책은 이처럼 디스크책이나 화면책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종이책에 비해 대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주는 편리한 검색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종이책이 텍스트 위주의 단일 매체(Single Media)인데 비해 미래의 책은 다중 매체(Multi Media) 책으로 소리 및 영상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제공한다. 게다가 종이에 비해서 디스크는 오랜 기간,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또한, CD롬 하나에 종이책 수백권의 분량이 들어감으로써 도서관의 서가나 서점의 진열대, 유통 과정의 교통비 및 창고의 보관비 등 출판사측에는 엄청난 경비 절감의 이익을 주게 된다. 이쯤되면 디스크는 차세대 종이, 전자 종이로서 출판계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